

# 책으로 되묻는 '5월 광주'의 진정한 의미

## 증언집 취재기 연구서 등 적잖게 선보여... '정치적' 문제여서 객관화엔 아직 어려움

이권우

자유기고가

80년대는 말(言)과의 싸움이었다. 권력과 말의 몸섞임과 그를 통한 말의 타락을 집요하게 그리는 소설가 정찬의 표현대로라면, 그것은 '죽음의 언어'와 벌인 싸움이었다. 정찬은, 죽음의 언어란 "광장의 모습을 항상 왜곡되게" 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은 "말이 순결을 잃었다면 곧 우리들의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며 인간집단의 모든 가치체계의 순결을 잃어버린 셈이다"고 했다. 80년대 내내 이땅의 사람들을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력함'으로 몰아부쳤던 그 순결을 잃은 말들은, 다시 정찬의 표현을 빌리면 '주술적 세계의 미망'이었다.

그 주술적 미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광주충격 그러니까 타락한 말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겪었던 失語症을 이겨내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타락한 말에 대해 '아니오'하고 외치기 시작한 말의 씨앗이 한편 한편의 책으로 결실을 맺어나갔다. 역사의 '의식'에서 추방당해 그것의 '무의식'으로 잠복했던 '광주'가 '의식'의 세계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비로소 '억압된 자들의 귀환'이 시작되었다.

### 출판 자체가 봉쇄되었던 80년대초

암흑의 시절, 광주를 입 밖에 내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검열관'에 맞서 '광주'의 진상을 밝히는 첫 조명탄을 쏘아올린 책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폴빛, 1985)이다. 전남사회운동협의회가 엮고 소설가 황석영이 기록한 이 책은, 당시 정권이 출판 자체를 봉쇄하는 탄압을 겪으면서 출판되어 그 자체가 출판운동사에 하나의 기념비가 되었다. "사실적인 사건 자체를 한시라도 빨리 여러 이웃들에게 알리기" 위해 "재난의 폐허 속에서 눈물을 씻으며 살림도구를 찾아 채기는 심정으로 각종 자료와 체험담,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그러모아 엮은 책이다. "항쟁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개념 규정은 체제놓고라도 사건의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로 무심한 반십년의 세월이 흘러가버린" 것에 대한 자괴감이 작가의 말로 기록된 이 책은, 광주의 前史('역량의 성숙')에서 그 후('끝나지 않은 투쟁')까지 이르는 기간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엮었다. 특히 부록으로 실린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 그리고 구속자 명단은 '소문'으로만 들

### 1987년의 6월항쟁과

#### 그를 통한 정치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 광주특위의 활동 이후 광주관련 책이

####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 이 책들은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 증언록, 당시 사태추이를 지켜보았던

#### 기자들의 기록, 그리고 소장학자를

#### 중심으로 광주를 과학적 틀로

#### 분석한 연구물 등 세가지로 나누어

#### 살펴볼 수 있다.

던 참상을 객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후 일간지나 진보적인 학술지에 단발성의 광주 관련 기사나 연구물이 발표되다가 붓물터지듯 광주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1988년이었다. 바로 전해의 6월 항쟁과 그를 통한 정치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광주특위'의 활동이 기폭제가 되었다. 88년 이후 나온 광주관련 책들은 광주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증언록, 당시 광주에서 사태추이를 지켜보았던 기자들의 기록, 그리고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광주를 과학적 틀로 분석한 연구물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중을 이룬 증언록. 광주를 둘러싼 논쟁의 시발점은 그 진상의 해명에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 항쟁 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묶은 책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작전 명령-화려한 휴가」(실천문학사, 1988)는 "지금까지 여러 갈래로 나온 광주사태의 자료를 한데 모으으로써 그 '전모'를 밝히려는 데 주안점"을 둔 책. 사태 당시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참여자의 증언과 수기를 중심으로 묶었는데, 특이한 것은 피해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의 그것도 실고 있다는 점. 당시 계엄군이었던 한 하사의 인간적 고뇌와 자책의 글이 수기로 실려 있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정부측의 백서도 실고 있다.

「광주항쟁 비망록」(남풍, 1989)은 5·18 광주 민중항쟁 유족회가 엮은 책.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일지와 함께 망월동에 문헌

희생자들의 이력을 소개한 '망월동 묘비명'이 실려 있다. 또한 국회 광주특위에서 제기된 쟁점의 진상을 밝힌 글과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한 글이 함께 실려 있다.

소설가 송기숙씨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가 펴낸 「광주여 말하라」(실천문학사, 1990)는 동 연구소가 이미 펴낸 바 있는, 광주항쟁 참여자 600명의 증언을 실은 「광주 5월민중항쟁 사료전집」에서 일부를 전제한 책. 사료전집에서 여러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을 선별했고, 사건진행의 시간별 일지와 광주관계 글 목록도 실었다.

「충정작전과 광주항쟁」(김영진, 동광, 1989)과 「광주민중항쟁」(정상용 외, 들배개, 1990)은 국회특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야당의원들이 펴낸 책이라 이채롭다. 특히 「광주 민중항쟁」은 국회 광주 특위위원으로 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했거나 그것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했던 9명의 공동저작으로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는 책. 앞의 책보다 좀더 풍부한 자료와 객관성 속에 이루어진 성과물로 광주를 전후로 한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밖에도 증언록으로는 5·18광주민중항쟁 증언록1」(5·18광주민중항쟁 유족회 엮음, 광주, 1987)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전남사회문제 연구소 엮음, 광주, 1988) 「광주보고서」(김양오, 청음, 1988) 「저항과 명상」(빛고을 출판사, 1989) 「부마에서 광주까지」(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엮음, 샘물, 1990) 등이 있다.

다음은 기자 출신들이 쓴 책. 특유의 직업 정신 덕택으로 눈과 발은 빨라 현장을 목격했으나 시대상황 탓으로 손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기자들이 묶은 취재수첩을 책으로 공개,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10일간의 취재수첩」(김영택, 사계절, 1988)이 대표적인 책으로 당시 동아일보 기자로 현장에 있었던 지은이가 광주사태의 전말과, 이른바 5대 의문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군부와 광주와 반미」(청사, 1988)는 「박정희시대」로 낙양의 지가를 한창 올렸던 저널리스트 이상우씨의 시론집. 애증 양면의 감정으로 지속된 대미관이 80년대 이후 반미로 전환된 원인을 전두환 정권의 생성과 광주와 관련된 미국의 역할 속에서 찾고 있다.

「광주의 닻 박관현」(임나평, 사계절, 1987)

은 광주항쟁을 이끈 한 청년의 전기로 읽는 광주항쟁사.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으로 항쟁의 불을 당겼고, 투옥후 단식투쟁 끝에 사망한 박관현씨의 일대기를 그렸다.

### 광주에 대한 이론서도 나와

1990년은 광주항쟁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광주 관련 책들이 왕성하게 쏟아졌다.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이미 나온 증언집 수준에서 벗어나 광주사태의 본질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책들이 출판되었다는 점. 집단저작으로는 「광주민중항쟁 연구」(정해구 외, 사계절)와 「광주 5월 민중항쟁」(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 폴빛)이 있고, 소장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일종의 대체교재로 만든 「사회과학개론」(백산서당, 전2권)에 실린 김창진(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씨의 「한국현대사와 광주민중항쟁」 등이 있다.

전체 5장으로 이루어진 「광주민중항쟁연구」는 소장학자들의 글모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회과학세례'를 받은 이른바 80년대 세대는 광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항쟁 참여 주체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광주항쟁에서 발현된 대중들의 역동성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변혁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는 단서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특히 "광주항쟁에서 구현된 '무장투쟁'의 성격과 '민중권력'의 실체를 심도있게 조망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의 진로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했다는 서문이 이 책의 성향의 일단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의 정치변동과 민중투쟁」(정해구),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구조와 항쟁주체」(김동욱),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조」(김준), 「광주민중항쟁의 발전구조」(김창진), 「광주민중항쟁과 미국의 개입구조」(박미경) 등 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광주를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적된 복합적 모순의 폭발이라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앞의 책이 소장학자들의 연구성과라면 「광주 5월민중항쟁」은 중견 학자들의 그것이라는 점에서 비교된다.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가 주최한 광주항쟁 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에 참가한 연구자들의 분야별 논문과 토론이 실



책|을|펴|자|미|레|를|열|자|

'93 책의해

# “모든 출력을 완벽하게 초고속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벽한 서체 지원을 통한  
출력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저희 마루벌에서는  
사보·잡지·단행본 등  
창간 혹은, 표지·본문디자인을  
바꾸고자 하시는 업체,  
기획·편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루벌 가족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루벌이 소중히 여기는 일들

- 디자인/표지·본문·광고·카드로그
- 편집/사보·잡지·단행본 전문
- 출력/매킨토시 출력
- 제판/원색·단색제판
- 제작/인쇄·코팅·제본

♣ 방문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제작한 서체견본집을 드립니다.

# 마루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701-2391(대표) Fax:701-2395

려 있다. 앞의 책과 마찬가지로 '광주 5월 민중항쟁 전후의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한 정책' 으로부터 '광주항쟁 이후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접근이 돋보인다. 특히 오수성(전남대 심리학)교수의 「광주 5월항쟁의 심리적 충격」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광주의 外傷에 대한 연구였다면, 그 內傷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논문. 광주와 관련된 정신장애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 이를 다시 사례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 시민이 집단적으로 비슷하게 겪었던 공포감, 무력감, 자괴심, 자책감 등이 집단무의식에 어떻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5월의 집단 증후군'을 살펴보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광주에 대한 문학창작의 시원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에 대한 문학은 아직 산발적이고, 장편소설화된 것도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 광주를 보는 서로 다른 관점

김창진씨(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는 「광주 민중항쟁을 보는 시각」(「90년대 한국사회를 보는 시각」, 한길사, 1990)이라는 논문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자유주의적 관점과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진보적 관점이라는 두분히 계급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관점이란 "광주민중항쟁을 5·17쿠데타조치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공수부대의 상상을 초월한 야만적 살상행위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자위적 항쟁"으로 보는 견해라는 것. 그래서 이 관점은 항쟁의 도화선을 군의 과잉진압에서 찾고 시민 투쟁의 순수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민중들이 기존의 지배구조를 거부하는 최고의 권력형태인 무장투쟁의 수준에까지 나아가게 된 역사적 구조적 원인을 근저에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고 지적.

이에 비해 진보적 관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계급적 민족적 모순이 만들어낸 지배층과 피지배 민중간의 대립이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특정 국면 속에서 민중과 독재간의 대립으로 집약되고, 이렇게 집약된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의 대립이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얽힌 가운데 특정 시기와 특정 장소에서 가장 날카롭고 적대적인 형태로 폭발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다.

또한 이같은 진보적 관점은 광주의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이론과 정치사상적 노선의 차이에 따라 운동권의 분화를 낳았는데, "대체적인 논의의 흐름을 보자면 80년대 초반에는 광주민중항쟁을 소박하게 민중운동사의 맥락에 위치시키려는 작업이 주된 과제였으며, 중반에는 민족해방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 두드러지다가 최근에는 항쟁의 전개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진출과 무장투쟁, 그리고 민중권력의 문제를 가장 중심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것은 미래의 해방으로 가는 수레"라는 마르쿠제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 계급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이밖에도 논쟁의 소재가 되는 몇가지 쟁점 들로는 항쟁의 객관적 배경과 지역적 조건(항쟁이 발생한 전남 광주지역의 특수성 또는 지방색의 문제와 한국사회 모순의 보편성과의 상관관계), 항쟁의 폭발적 고양과 민중무장봉기로의 발전(광주항쟁 발생의 직접적 원인과 그 전개과정에서 질적 전환의 계기와 요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민중의 자치 또는 '민중권력'의 성립(최초의 자연발생적 대중시위가 전면적인 민중봉기로 발전하면서 이루어낸 민중공동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투쟁과정에서의 주도계급과 지도노선의 대립, 미국의 역할과 한국의 국가권력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성과에 대해 최장집(고려대 정치학)교수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일단 긍정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계급편향적인 면에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 또한 광주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태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광주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이슈여서 객관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객관적 연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